

2020년 와싱턴사립의교회 Youth Program

생명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.

2020년을 맞아 와싱턴사립의교회 차세대 사역팀에서 준비한
Youth 프로그램에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.

이 프로그램은 가치관, 문화, 세대, 언어등의 장애를 극복하고
자녀들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한
것입니다. 매달 약 두시간 동안의 모임을 통해 청소년기 자녀들의
심리에 대한 특강과 나눔이 있을 것입니다. 자녀 이해에 관심을 가진
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

장소: 와싱턴사립의교회 소예배실
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Koinonia / Small Chapel
6400 Old Centreville Road, Centreville, VA 20121

시간: 토요일 6 pm - 8 pm

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

장운식 (703-623-0156, donghodad2002@yahoo.com),

정도균 (202-297-5836, xentle@gmail.com)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한정민 (Monica J. Lee, LPC)

-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(LPC)/Marriage & Family Therapist (MFT)
- M.S. in Pastoral Counseling @Loyola University Maryland, 2012
- M.Ed. in Educational Psychology @George Mason University, 2006
- Imago Relationship Therapist (이마고 관계치료사)

이 모임을 이끄실 한정민 (Monica Lee) 선생님은 심리상담 전문가 (LPC: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)로서 서울대학교에서 가정학을 전공하고, George Mason 대학에서 교육심리 석사, Loyola University Maryland에서 목회상담 석사를 받았습니다. 이마고(Imago) 관계치료 전문가 과정을 마친 후 부부가족 치료로 상담 영역을 넓히면서, 지금은 Daybreak 대학에서 '결혼 가족치료'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. 7년 넘게 한국일보에 상담칼럼과 여러 세미나와 워크샵 및 [북Talk] 등을 통해 경험과 배움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있으며, 저서로는 <아들아, 잠시 쉬었다 가도 괜찮아>가 있습니다.

2020 SCHEDULE

2/2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Introduction • Program Overview • Schedule Review 	
3/21	자녀의 심리 이해 - 일반적인 이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정의 기복 • 정서불안 • 스트레스 • Anxiety
4/25	자녀의 심리 이해 - 특수상황 이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노조절 장애 • 집착 • 우울 • 강박
5/16	자녀의 행동 이해 - 내부적인 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동 장애 • 집중력, 자제력 부족 • 만성 재발
6/20	자녀의 행동 이해 - 외부적인 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약물 의존 • 자살 충동 • 술, 담배에 대한 호기심 • 게임
Summer Break		
8/22	청소년기 자녀의 대인관계 - 심리 이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Peer Pressure • 자존감 • Social Anxiety Disorder
9/19	청소년기 자녀의 대인관계 - 친구간의 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 • 교회 • Social Media
10/10	청소년기 자녀의 성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Sex, Dating, Marriage • 성서적 관점에서의 성 이해
11/21	가정 내에서의 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정 교육 • 신앙 문제 • 가치관의 극복 • 세대 차이 • 한국/미국 문화 장벽의 극복
12/12	마무리	